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최 선 우[†]

덕성여자대학교

김 승 현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015 성남시청소년중독실태조사의 데이터 중 스마트폰 사용자인 984명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측정 변수들 간의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남, 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은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낮춘다.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서도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영향을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함께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스마트폰 중독, 부모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선우,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E-mail : eunbit0608@naver.com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5)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1년 31.3%에서 2014년 78.6%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PC컴퓨터의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형태의 기기(김병년, 최홍일, 2013)로 일반 휴대전화의 기능 이외에 채팅, 게임, 정보검색, 교육,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빠른 속도가 제공되고 있어 상당한 접근성, 휴대성, 편리성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과다사용이나 몰입, 의존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보다 더 중독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Levin, 2010).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장애를 말한다. 실제 중독률을 살펴보면,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2006년 9.2%에서 2014년 6.9%로 줄어든 반면 만10~54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011년 8.4%에서 2014년 14.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011년 11.4%에서 2014년 29.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1.3%인 성인의 중독 위험군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높았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

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무언가 더욱 몰입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윤영숙, 2013). 또한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이해경, 2008) 상대적으로 충동억제와 통제력에 약하기 때문에 중독으로 갈 위험이 높다(오현희, 김현진, 2014).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용도의 통계를 보면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가 84.2%로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또래들과의 소속감,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등 또래 상호작용이라는 이용동기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중독에 취약하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Zsolt, D., et, 2008). 이렇듯 청소년기의 특성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적인 특징들과 맞물리면서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독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의 중독률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임중독이나 사이버따돌림, SNS중독, 음란물 유포, 유해 어플리케이션 접촉 등의 역기능적인 문제들과 눈의 피로, 근육통, 손목터널증후군, 수면장애 등 신체적 문제(Sahin, Ozdemir & Unsal, 2013), 심리적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박용민, 2011)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부적응, 학업수행 문제, 문제행동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한 상황으로 2011년부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그 중에서 학령별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가장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을 탐색하여 이와 관련된 예방법이나 치

료적 개입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성차에 대한 연구 역시 아직 미비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두식(2015), 오광수(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김형지, 김정환과 정세훈(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진단결과에 따라 세 가지 집단인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집단으로 나눈 뒤 남, 여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를 모두 보이는 집단을 말하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중 1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며 사용조절력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기능저하를 보이는 집단을 말한다. 또한 일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을 이용목적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는 집단을 말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은 크게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인 변인과 가족 및 학교를 포함하는 환경 변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중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불안, 충동성 등이 연구되고 있다(곽민주, 이희숙, 2009; 박미진, 김광웅, 2015). 또한 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애착, 또래애착, 가족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연구되고 있다(오현희, 김현진, 2014; 최이순, 2007). 그러나 이러한 개인 심리적 변인과 환경 변인을 함께 본 연구는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개인

심리적 변인과 가족 관련 변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가족 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을 들 수 있는데 Flores(2008, 2010)는 중독이 애착관계에서 얻지 못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외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중독대상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중독을 애착장애로 간주하였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뜻한다(Bowlby, 1958). Bowlby(1989)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발달시키는데 이것이 내적작업모형이고 이렇게 형성된 내적작업모형은 사회적 관계의 원형이 되어 전 생애동안 지속되게 된다. 이렇게 자신과 가까운 양육자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는 생존에 중요한 안전기지 역할을 하여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할 경우 자신들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Williams & Kelly, 2005; 임수진, 안진홍, 2012에서 재인용). 특히 다양한 변화와 발달을 겪으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특성상 부모와의 애착은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Armsden과 Greenberg(1987)이 16세~20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애착 수준이 낮을 경우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백혜정, 황혜정, 2006; 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

최근에는 중독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와
의 애착과 휴대폰 중독이 관련이 있고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휴대폰 중독이 낮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성아; 2008,
신보라, 이희경; 2013, 장혜진, 채규만; 2006)
또한 여지영, 강석영과 김동현(2014)의 연구에
서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고 외
로움도 크며, 스마트폰 중독도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
폰 중독에 비해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
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지
만 이 같은 연구들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모와의 애착과 부와의 애착을 분리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부와의 애착은 모와
의 애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며 모에 대한 애착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부와 모의 애
착이 통합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양육에 있어서
부의 역할이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와의 애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성윤지, 2013). 또한 모와의 애
착은 영아기 이후의 발달에서 언어발달, 표현
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통제력 등과 같은 영
역에서 영향을 미치며(박경순, 2000), 부와의
애착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특히 인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정신, 1999)
등 질적으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영역
에 영향을 주는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

인으로 개인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있
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우울, 불안과 같은 다
른 개인 심리적 변인들을 예측하는 중요한 예
언변인이 되기도 한다(도금혜, 2008;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또한 청소년기의 긍정
적인 자아발달은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적 변인
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Rogenberg
(1965)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을 존경 받
을 수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
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물질과 행동을 찾아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추
구하면서 중독에 빠져들게 되며 중독은 또 다
시 통제 상실감, 실패감을 증가시키고 이에
자아존중감이 더 낮아질 수 있다(석말숙, 구용
근, 2014). 또한 Craig(1995)는 자아존중감이 낮
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부정적인 평가와 대인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도피하기 위해 특정 객
체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휴대폰 중독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 낮
을수록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나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주, 이희숙 2009;
김정숙, 2003; 신흥식, 배연려, 안진숙, 최원지,
장성화, 2011; 임진형, 2007;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또한 김정남(2012)의 연구에서
는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초등학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이순(2007)의 연구에서는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충동성이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과 충동성이 높을 경우 휴대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박민수(2013)의 연구에서 스마트폰의 중독과 학업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지혜(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으로 한 성준모(2014)의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장래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과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아존중감과 휴대폰 중독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편이며 구용근(201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한편 가족 변인인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Wilkinson(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정병삼(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애착이 모든 시기에서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듯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윤태희, 조영일, 2014; 장휘숙, 1997.; Huntsinger & Lueken, 2004; Maccoby & Martin, 1983).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존중받

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Park, Crocker, & Mickelson, 2004; Roberts, Gotlib, & Kassel, 1996; 윤정민, 강민주, 2015에서 재인용).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타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Armsden & Greenberg, 1987).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기보다 다른 변인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여지영, 강석영, 김동현, 2014; 조수연, 2014). 이러한 매개변인의 탐색은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게 되는 심리적 기제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이후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에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을 경우 자아존중감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상관을 밝히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여 매개변인의 역할 및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후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실제 상담과 교육장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집단 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와의 애착, 자아존중감과 스마트폰 중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청소년 1104명을 대상으로 한 2015 성남시청소년중독실태조사의 데이터 중 스마트폰 사용자인 992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 중 무응답이 많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8명을 제외한 98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하위문항을 살펴보면, 총 4요인으로 일상생활장애를 측정하는 5문항, 가상세계경험 지향성을 측정하는 2문항, 금단을 측정하는 4문항, 내성을 측정하는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자	443(45)
	여자	541(55)
	총 합계	984(100)
학년	중학교 1학년	191(19.4)
	중학교 2학년	176(17.9)
	중학교 3학년	163(16.6)
	고등학교 1학년	185(18.8)
	고등학교 2학년	174(17.7)
	고등학교 3학년	95(9.6)
총 합계		984(100)
사용시간 (하루 기준)	1시간 미만	121(12.3)
	1시간-3시간 미만	493(50.1)
	3시간-5시간 미만	224(22.8)
	5시간-7시간 미만	80(8.1)
	7시간-9시간 미만	38(3.9)
	9시간-15시간 미만	16(1.6)
	15시간 이상	8(0.8)
	무응답	4(0.4)

4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3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역 채점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고위험군에 속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분류 기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개발 당시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9이었다.

표 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수준 분류 기준(정보화진흥원, 2011)

채점	총점	① 원점수 총점(1~15번 합계)
	요인별	② 1요인(일상생활장애)의 합계 ③ 3요인(금단)의 합계 ④ 4요인(내성)의 합계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① 45점 이상
	요인별	② 1요인-16점 이상 ③ 3요인-13점 이상 ④ 4요인의 14점 이상
	판정	① 에 해당하거나 ②~④ 두 해당하는 경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총점	① 42점 이상 44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4점 이상 ③ 3요인 12점 이상 ④ 4요인의 13점 이상
	판정	①~④ 중 최소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일반 사용자군	총점	① 41점 이하
	요인별	② 1요인 13점 이하 ③ 3요인 11점 이하 ④ 4요인의 12점 이하
	판정	①~④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모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Bowlby가 제안한 애착 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를 기초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 인물에 대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부모애착 척도는 신뢰감, 의사소통의 질, 소외감의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욕구에 대

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 안정성을 측정하는 신뢰차원이 10문항,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의사소통의 질 차원이 9문항,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측정하는 소외감 차원의 질문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한 후 사용하였다. 옥정(1998)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였을 때 전체 부모애착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와의 애착은 .93, 모와의 애착은 .92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부모와의 애착은

.94, 모와의 애착은 .93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1, 2, 4, 6, 7)과 부정적 자아존중감(3, 5, 8, 9, 10)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다. 부정적 문항 5개의 경우, 응답 점수를 역 채점하여 긍정적인 문항에 대한 5개의 점수와 합산, 총 자아존중감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뜻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0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집단 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와의 애착,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각각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집단 교차분석 및 카이자승 검증

먼저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집단 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및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표 3.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집단 교차분석 및 카이자승 검증

	전체	남자	여자	χ^2	p
고위험 사용자군	36(3.6%)	16(3.6%)	20(3.7%)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221(22.5%)	86(19.4%)	135(25%)	4.38	.112
일반 사용자군	727(73.9%)	341(77%)	386(71.3%)		
전체	984	443	541		

* $p < .05$, ** $p < .01$, *** $p < .001$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집단 간에 남, 여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있어 성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과 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와의 애착, 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와의 애착($\beta = -.326, p < .001$)과 모와의 애착($\beta = -.326, p < .001$)은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와의 애착과 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정도는 모두 11%에 해당하였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

표 4. 스마트폰 중독, 부와의 애착, 모와의 애착,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스마트폰중독	부 애착	모 애착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중독	1			
부 애착	-.326***	1		
모 애착	-.326***	.843***	1	
자아존중감	-.381***	.493***	.492***	1

* $p < .05$, ** $p < .01$, *** $p < .001$

표 5.1.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
스마트폰중독	상수	44.605		34.713***	.106	116.668***
	부 애착	-.149	-.326	-10.801***		
스마트폰중독	상수	45.740		32.911***	.106	116.431***
	모 애착	-.157	-.326	-10.790***		

* $p < .05$, ** $p < .01$, *** $p < .001$

표 5.2.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F
스마트폰중독	상수	48.451		35.246***	.145	166.545***
	자아존중감	-.602	-.381	-12.905***		

* $p < .05$, ** $p < .01$, *** $p < .001$

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beta = -.38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정도는 15%에 해당하였다.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1.과 표 6.2.에 제시하였다. 부와의 애착을 먼저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 부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유

의한 영향($\beta = -.32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부와의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beta = .493,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부와의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beta = -.291, p < .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와의 애착이 $\beta = -.326$ 에서 $\beta = -.182$ 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β 값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 즉 매개효과를 나타내주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s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 = -7.80, p < .001$). 이 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스마트폰 중독을 11% 설명하였고,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

표 6.1.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변인	B	SE B	β	t	R ²	F
1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 애착 -> 스마트폰 중독	-.149	.014	-.326	-10.801***	.106	116.668***
2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 애착 -> 자아존중감	.142	.008	.493	17.779***	.244	316.087***
3단계 :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부 애착 -> 스마트폰 중독	-.083	.015	-.182	-5.454***	.170	75.629***
자아존중감 -> 스마트폰 중독	-.460	.053	-.291	-8.696***		

* $p < .05$, ** $p < .01$, *** $p < .001$

표 6.2. 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변인	B	SE B	β	t	R ²	F
1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모 애착 -> 스마트폰 중독	-.157	.015	-.326	-10.790***	.106	116.431***
2단계 : 독립변인 ->매개변인 모 애착 -> 자아존중감	.150	.008	.492	17.708***	.242	313.566***
3단계 :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모 애착 -> 스마트폰 중독	-.088	.016	-.182	-5.459***	.170	75.921***
자아존중감 -> 스마트폰 중독	-.460	.053	-.291	-8.71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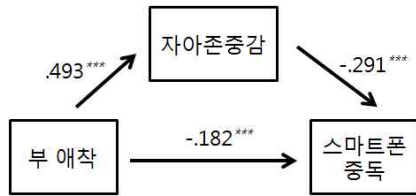


그림 1. 부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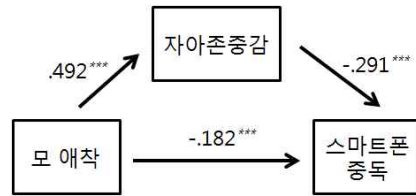


그림 2. 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존중감을 포함한 모델은 스마트폰 중독을 17% 설명하였다. 부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모와의 애착을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 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영향($\beta = -.326$,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모와의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beta = .492$,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모와의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beta = -.291$, $p < .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와의 애착이 $\beta = -.326$ 에서 $\beta = -.182$ 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Sobel's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Z = -5.78$, $p < .001$). 이 과정에서 모와의 애착은 스마트폰 중독을 11% 설명하였고, 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델은 스마트폰 중독을 17% 설명하였다. 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 집단 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사용 집단 간에 남, 여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있어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김형지, 김정환과 정세훈(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청소년의 남녀 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차이가 1.3%로 작게 나타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의 통계치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성의 중독 위험군이 더 높은 성인과는 다르게 청소년기에는 여학생들이 특히 이용동기 면에서 또래상호작용이라는 목적이 크고 스마트폰을 통한 간접적 대화를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Stern2008)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남, 여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고 연구 대상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중독 수준에 따른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애착, 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은 스마트폰 중독 수

준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애착과 모와의 애착은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모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고 부모와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이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김성아, 2008; 신보라, 이희경, 2013; 장혜진, 채규만, 2006).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연지 못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상호작용이나 온라인게임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모와의 애착을 다룬 선행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모와의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부모의 애착과 모와의 애착을 비교해서 본 결과, 어느 한 변인이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지 않고 같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발달 및 적용에 있어 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애착이 모두 중요한 변인이라는 Main과 Weston(1981)의 연구, 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애착이 모두 휴대폰 중독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박주신과 강문희(2007)의 연구와 이혜선과 강차연(2007)의 연구,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이 모두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오현희와 김현진(2014)의 연구 결과와 잘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모와의 애착만이 강조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부의

역할이 많아지고 부와의 애착이 자녀의 인지,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모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부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휴대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곽민주, 이희숙 2009; 김정숙, 2003; 신흥식, 배연려 외, 2011; 임진형, 2007; 장석진 외, 2012, LaPorta, 2006).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우울,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하고자 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와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특정한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 대상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선 안정된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는 정병삼(2010), 박은희와 최은실(2015), 윤태희와 조영일(2014), 장휘숙(1997), Huntsinger와 Luecken(2004), Maccoby와 Martin(1983)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이렇게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사이

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애착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서도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인의 애착을 다루는 것은 오랜 시간을 요하며 전문적인 심리치료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에 학교에서 제한된 상담회기 내에서 이를 다루거나 새로운 애착패턴을 학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의 이해와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협성을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적 관점이며 애착 못지않게 스마트폰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도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 심리적 변인이므로 탐색과 수정이 용이하고 매개변인으로써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후에 개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면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부분을 넣거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은 부모의 부재와 같이 가족의 구조상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더욱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점에 있으며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과 가족 변인을 함께 고려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그 경로를 파악하였다. 이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독 예방 및 실제 상담과 교육장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객관성 등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진 문제점과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좀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교사와 부모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거나 관찰법, 면접법 등의 연구방법이 병행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이 연구 결과를 전체 중, 고등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표집 대상을 선정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연

구가 함께 병행된다면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인해 중독이 되는지 분석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다루었으나 중학생은 남성이, 고등학생은 여성이 중독 위험군이 더 높게 나온다는 통계 결과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나누어 연구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감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과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55-93.
- 곽민주, 이희숙 (2009).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실태와 중독적 이용. *생활과학연구논총*, 13(1), 183-205.
- 구용근 (2014).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년, 고은정, 최홍일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독 위험군 분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0), 67-98.
- 김병년,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성아 (2008). 모애착이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 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201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정신건강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3). 휴대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 충동성.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신 (199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금혜 (2008).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인간발달연구, 15(3), 131-147.
- 문두식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 매개변인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박경순 (2000). 영아기 어머니 역할 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진, 김광웅 (2015).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개념과 개인 심리적 요인 및 임상적 개입에 대한 논의: 2011년~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2), 97-113.
- 박민수 (2013).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민 (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최은실 (2015)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57-79.
- 박주신, 강문희 (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과의 관계. 심리치료, 7(1), 1-15.
- 박현주, 정대용 (2010).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고통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성차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381-401.
- 박희경, 권경인 (2012).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2), 301-329.
- 백혜정, 황혜정 (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석말숙, 구용근 (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 19(4), 905-928.
- 성윤지 (2013). 청소년의 소외감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준모 (201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3), 5-32.

- 신보라, 이희경 (2013). 청소년의 모 애착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질을 통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1-22.
- 신홍식, 배연려, 안진숙, 최원지, 장성화 (2011). 고등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2(1), 31-44.
- 여지영, 강석영, 김동현 (2014). 초기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충동성, 외로움의 매개효과: SNS 집단과 게임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47-69.
- 오광수 (2015).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이 공감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희, 김현진 (2014).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가족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5(4), 35-57.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숙 (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민, 강민주 (2015). 고등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물질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3), 323-350.
- 윤태희, 조영일 (2014).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중단적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61-87.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2).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해경 (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이혜선, 강차연 (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 사용과 애착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79-95.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임수진, 안진홍 (2012).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31-346.
- 임진형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천, 여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진, 채규만 (2006). 기술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휴대폰 사용중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839-852.
- 장휘숙 (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장휘숙 (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延世論叢*, 11(1), 107~130.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수연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대인불안의 매개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정경아, 김봉환 (2014).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1), 55-74.
- 최이순 (2007).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허지혜 (2013).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1177.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3), 350-373.
- Bowlby, J. (1989). *Secure and insecure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raig, R. J. (1995). The role of personality in understanding substance abus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13, 17-27.
- Flores, P. J. (2010). 애착장애로서의 중독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김갑중, 박찬이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8년에 출판).
- Huntsinger, E. T., & Luecken, L. J. (2004).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health behavior: The mediational role of self-esteem. *Psychology & Health*, 19, 515-526.
- Laporta, L. D. (2006). Cellular Telephones: A New Addiction? *Psychiatric Times*, 23(11), 64-69
- Lewin, T. (2010). *If your kids are awake, they're probably online*. The New York Times, 20.
- Loeber, R., & Dishion, T. J. (1984).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family conditions influencing cross-setting consist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759-768.
- Maccoby, E. E., & Martins,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New York: John Willey & Sons.
- Main, M., & Weston, D. R. (1981). The quality of the toddler's relationship to mother and to father: Related to conflict behavior and the readines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2(3), 932-94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hin, S., Ozdemir, K., Unsal, A., & Temiz, N. (2013). Evaluation of mobile phone addiction level and sleep quality in university students. *Pakist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9(4), 913-918.
- Stern, S. (2008). *Gender constructed on line, stereotypes revised offline: Understand Media Representation of Adolescent Girls on MySpac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an Francisco.
- West, D. J., & Farrington, D. P. (1973). *Who becomes delinquent?* N.Y.; Crane, Russak & Co.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60.

Zsolt, D., Beatrix, S., & Sandor, R. (2008). The three-factor model of Internet addiction: The development of Problematic Internet Use Questionnaire. *Behavior Research Methods* 40(2), 563-574.

원 고 접 수 일 : 2015. 10. 12.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2. 26.

최종게재결정일 : 2015. 12. 29.

**Influence of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on Addiction to Smart phone:
Mediation Effect brought in by Self-esteem**

Sun-woo Choi

Duksung Women's University

Seung-hyun Kim

Seongnam Addiction Management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if self-esteem plays a role in relation to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perceived by them and smart phone addiction. To fulfil its objective, the current study targeted 984 smart phone users from the data of year 2015 adolescent addiction to smart phone in Seongnam-si to measure the level of self-esteem, attachment to parents and addiction to smart phone. Also, based on its theoretical background, a mediation model was set using measured variables fo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level of adolescent addiction to smart phone were the same between boys and girls. Second,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self-esteem both negatively affected addiction to smart phone. Third, self-esteem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in relation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addiction to smart phone. The more stable their attachment to parents was, the higher their self-esteem got and elevated self-esteem lowered adolescent addiction to smart phone. Conclusively, attachment to parents directly affected the addiction to smart phone and even self-esteem mediation had indirect grip on smart phone addiction. Lastly, what these results may mean was discussed along with the indications and limitations shown in this study.

Key words : smart phone addiction, attachment to parents, self-esteem